

주요개념 :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 양육태도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

김 신 정* · 김 계 속** · 김 영 희***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정은 아동이 출생하여 최초의 인간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가정환경의 다양한 변인들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가족관계는 아동 성장, 발달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이며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관계인데,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동이 최초로 접하는 접촉 대상이며 어머니를 통해 주변 사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볼 때 어머니는 다른 어느 구성원보다 그 영향력이 크다(김희숙 등, 2006; 조결자 등, 2005; 조규성, 1999; 최수진, 2002).

양육태도는 일반적으로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

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하며 이러한 태도 및 행동에는 신념, 가치, 훈육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부모의 표현이 포함된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사회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여 왔으며 그 시대 및 사회가 지향하는 아동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형성되는데, 양육태도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는 아동의 인성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현숙, 1997; 박성연, 1989; 박연순, 1999; 서창구, 2002).

학령전기는 전통적으로 만 3, 4, 5세를 포함하는 시기로, 취학전기 또는 유치원 시기라고도 한다. 이 시기는 신체의 성장은 감소되나 언어, 사회성, 창조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인간의 기본적 특성이 결정되며 인간 행동의 형성기로서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나날이 인정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가족은 이 시기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김계속, 김희숙, 김신정, 문선영, 1999; 김희숙 등, 2006).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아동 관계의 질을

*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 안산대학 간호과 교수

***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김신정 : ksj@hallym.ac.kr

결정해 주고 아동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제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어머니가 아동의 성장, 발달에 대한 이해와 개별적인 아동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갖도록 제시함으로써 어머니-아동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정계숙(1987)이 개발한 한국형 부모 양육태도 검사(KPAAT)도구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검사(KPAAT: Korean Parent As A Teacher Test)도구를 이용하여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여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함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양육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양육태도 정도를 하위영역과 요인에 따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2차 분석(secondary-analysis)연구이다. 1차 분석에서는 학령전기 아동 부모 187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부모 양육태도 검사의 타당성을 연구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2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 13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이 중 자료가 불충분한 27부를 제외한 103명의 대상자 자료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목적과 함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맡겼다. 그런 후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의 어머니에게 안내장을 직접 주고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연구자가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4.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인 한국형 부모 양육태도 검사(KPAAT: Korean Parent As a Teacher Test)도구는 1972년 미국 Arizona 대학교의 Strom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모체로 정계숙(1987)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아동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총 8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며 이는 16개의 하위영역(질문에 대한 반응, 놀이에 대한 허용적 태도, 통제, 놀이의 통제, 아동에 대한 기대, 학습에 대한 이해, 학습에 대한 지원, 사고의 격려, 상상놀이 기회 제공, 놀이의 지원, 성취동기의 육성, 훈육의 타당성, 정의적 지원, 고정관념, 교육에 대한 자신감, 제한)과 6개의 요인(질문에 대한 반응, 놀

이의 허용, 통제와 제한, 아동에 대한 평가와 지원, 학습의 성취 격려, 창의성 발달의 촉진)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도구는 1-4점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93$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92$ 로 높게 나타났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양육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설문 문항의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03명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 아동의 성별은 여아가 56.3%로 남아(43.7%)보다 많았으며 아동의 연령은 46-72개월의 범위로 평균 65.5(±10.1)개월이었다. 아동의 형제 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62.1%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인 경우가 35.0%, 셋째인 경우가 2.9%로 나타났는데, 외동인 경우가 20.4%이었다. 대상자가 생각하는 아동의 성격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4.4%이었으며 '순하다'는 경우가 25.2%, '까다롭다'는 경우가 20.4%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은 22세-45세의 범위로 평균 34.2(±3.2)세로 나타났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가 85.4%로 대

부분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대졸이 60.2%로 고졸(39.8%)보다 많았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33.0%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가 생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상태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65.0%로 가장 많았다.

2. 대상자의 아동 양육태도 정도

대상자의 아동 양육태도는 평균 2.86(±.20)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표 1>.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아이가 장난감으로 꾸밈 놀이(예: 엄마·아빠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인다」가 3.62(±.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있으면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든다」가 3.59(±.51)점이었고 「아이와 많이 놀아줄수록 아이의 버릇이 나빠질 것이다」가 3.49(±.5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들이 놀 때는 칭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가 1.93(±.8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이가 잘 해내기 바란다」가 1.99(±.77)점이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해야 한다」가 2.00(±.5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아동 양육태도 정도

	M	SD
아동양육태도	2.86	.20

이러한 85개의 문항은 16개의 하위영역과 6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표 2>.

16개의 하위영역은 「통제」 하위영역(2.24±.29)만 제외하고 모두 중간점수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하위영역 중 「학습에 대한 이해」가 3.17(±.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훈육의

〈표 2〉 아동 양육태도의 하위영역과 요인

번호	하위영역	M(SD)	요인	M(SD)
1	질문에 대한 반응	2.86(.39)	질문에 대한 반응	2.86(.39)
2	놀이에 대한 허용적 태도	2.80(.37)		
4	놀이의 통제	2.87(.35)		
9	상상놀이 기회 제공	2.96(.33)	놀이의 허용	2.85(.25)
15	교육에 대한 자신감	2.76(.34)		
3	통제	2.24(.29)		
16	제한	2.88(.35)	통제와 제한	2.56(.25)
5	아동에 대한 기대	2.75(.32)		
7	학습에 대한 지원	2.92(.29)	아동에 대한 평가와 지원	2.79(.22)
10	놀이의 지원	2.70(.24)		
6	학습에 대한 이해	3.00(.28)		
11	성취동기의 육성	3.17(.29)	학업의 성취 격려	3.08(.24)
8	사과의 격려	2.81(.33)		
12	훈육의 타당성	3.05(.35)		
13	정의적 지원	2.98(.33)	창의성 발달의 촉진	2.93(.24)
14	고정관념	2.87(.32)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정도의 차이

(N=103)

특성	구분	N (%)	양육태도		t or F	p
			M	SD		
아동 성별	남아	45	2.83	.15	-1.457	.148
	여아	58	2.88	.23		
아동 연령	5세 이하	26	2.86	.24	.024	.981
	6세 이상	77	2.86	.18		
아동 순위	첫째	64	2.88	.21	1.576	.118
	둘째 이상	39	2.82	.18		
아동 성격	까다롭다	21	2.82	.20	.602	.550
	보통이다	56	2.85	.18		
	순하다	26	2.88	.20		
외동 여부	예	21	2.92	.25	1.561	.122
	아니오	82	2.84	.18		
대상자 연령	35세 미만	59	2.87	.21	.435	.665
	35세 이상	44	2.85	.19		
직업	유	15	2.90	.22	.793	.430
	무	88	2.85	.20		
교육정도	고졸	41	2.83	.14	-1.399	.165
	대졸 이상	62	2.88	.23		
종교	유	59	2.88	.21	1.447	.151
	무	44	2.83	.18		
경제적 상태	상	12	2.91	.20	.453	.637
	중	67	2.86	.21		
	하	24	2.84	.16		

타당성」이 3.05(±.35)점이었고 「성취동기의 육성」이 3.00(±.2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16개의 하

위영역을 포함한 6개의 요인은 모두 중간점수인 2.5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의 성취 격려」

가 3.08(±.2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창의성 발달의 촉진」이 2.93(±.24)점이었으며 「질문에 대한 반응」이 2.86(±.3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3>.

대상자의 양육태도 정도는 아동의 성별($t = -1.457, p = .148$), 아동의 연령($t = .024, p = .981$), 아동 순위($t = 1.576, p = .118$), 아동 성격($F = .602, p = .550$), 외동 여부($t = 1.561, p = .122$), 대상자의 연령($t = .435, p = .665$), 직업 유무($t = .793, p = .430$), 교육 정도($t = -1.399, p = .165$), 종교 유무($t = 1.447, p = .151$), 경제적 상태($F = .453, p = .637$)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대상자의 양육태도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IV. 논 의

가정은 인간이 출생한 후 갖는 일차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가정환경 중에서도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에게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조규성, 1999).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다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형적, 내형적 행동으로 박성연(1989)은 부모가 아동을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데 있어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는 실제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잡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진 영구적인 인간관계이며 이 관계는 아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박연순,

1999). 따라서 어머니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수진, 2002).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아동 양육태도는 평균 2.86(±.20)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영역과 요인별로 구분하였을 때 16개의 하위영역에서는 「통제」 하위영역(2.24±.29)만 제외하고 모두 중간점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16개의 하위영역을 포함한 6개의 요인도 모두 중간점수인 2.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양육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6개의 요인에서는 「학업 성취의 격려」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학습을 이해하고 성취동기의 육성을 도모하는 양육태도로, 고학력 사회를 추구하고 가정생활의 여유 등으로 인해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자기발전의 욕구 등이 점차 증대하고 있어(이승숙, 2001)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자녀 양육 중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학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는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학부모에게 있는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창의성 발달의 촉진」요인은 아동의 사고를 격려하고 정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훈육하는 부모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정계숙, 1987). 창의성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오늘날 전자두뇌라 불리는 컴퓨터를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창의성 발달을 교육의 당면과제로 삼고 있는데(온경일, 1999), 정계숙(1987)은 학령전기가 창의성 육성에 최적의 시기이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기라고 하였고 김보영(1990)은 개인의 환경 중에서도 가정환경이 창의성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질문에 대한 반응」 요인은 질문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는 것으로, 학령전기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며 그 작용을 알려고 하며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로 아동은 끊임 없이 많은 질문을 한다(김계숙 등, 1999; 김희숙 등, 2006).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아동의 질문을 격려하고 적절히 반응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놀이의 허용」 요인은 놀이에 대해 제한이나 통제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으로, 학령전기 아동에게 있어서 놀이는 생활이고 발달의 지름길이며 나아가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박연순, 1999). 학령전기는 모든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아동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활동하면서 보낸다(장은숙, 2002). 아동의 자발적 활동으로서 놀이는 주변세계와 관련된 지식, 기초, 태도 등을 학습하게 할 뿐 아니라 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언어적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놀이는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한 필연적 활동이며 즐거움을 위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태도이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어느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놀이를 통해 학습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가장 큰 관심은 놀이에 있으며(정계숙, 1987)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놀이의 허용 요인의 점수가 2.85점으로 나타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동에 대한 평가와 지원」 요인은 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것이다. 즉, 아동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필요시 도움을 주고 아동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으로 이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을 중요시하고 격려하는 것은 학령전기 아동의 발달과업인 솔선감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와 제한」은 가장 낮은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통제와 제한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제는 억압과 금지, 비판, 지배, 권위 등으로 자녀를 취급하는 것이다(서창구, 20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통제와 제한 요인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정도의 차이는 아동의 성별($t=-1.457, p=.148$), 아동의 연령($t=.024, p=.981$), 아동 순위($t=1.576, p=.118$), 아동 성격($F=.602, p=.550$), 외동 여부($t=1.561, p=.122$), 대상자의 연령($t=.435, p=.665$), 직업 유무($t=.793, p=.430$), 교육 정도($t=-1.399, p=.165$), 종교 유무($t=1.447, p=.151$), 경제적 상태($F=.453, p=.637$) 등의 모든 변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아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수진(2002)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를 둔 어머니는 아동에 대해서 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반면 여아를 둔 어머니는 아동에 대해 덜 거부적이며 덜 통제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양육태도가 부모나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가정이 제기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동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아들과 딸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태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어느 사회에서든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기대하는 독특하고 고유한 성 역할 기대와 규범이 틀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동 순위에 따라서는 첫째아이인 경우가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양육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 있는 양육태도를 취한다고 알려져 있다. 첫째아이에게는 부모의 불확실한 지식 때문에 시행착오적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둘째나 셋째아이는 육아경험

이 생긴 부모가 자신 있게 키우기는 하지만 첫아이 때처럼 정성을 기울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아동의 외동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외동인 경우의 양육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김순자(1982)는 자녀가 너무 많으면 부모와의 접촉시간도 감소되므로 애정이 충족되지 못하는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은수(1985)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라는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외동이라는 자체의 위치보다는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35세 미만인 경우와 36세 이상인 경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35세 미만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수진(2002)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은 경우, 어머니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한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적절할 때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에 더 큰 만족감을 보이고 아동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대상자의 직업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직업이 있는 경우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최수진(2002)의 연구결과와 같으며 김현숙(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대상자의 교육 정도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인 경우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수진(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대졸 이상인 경우가 자녀를 더 자율적인 태도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안진(1985)은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유아의 호기심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고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복종, 정직 등 즉각적인 반응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숙(1988)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간적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상태가 상, 중, 하의 순서로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최수진(2002)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상류층은 아동 양육시, 칭찬과 보상 등의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하류층은 체벌이나 조정 등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다(오왕목, 1984; 이은수, 1985).

정계숙(1987)에 의해 개발된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를 이용한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연구대상인 학령전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비교적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본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될 것으로 보여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형 부모 양육태도 검사도구(KPAAT: Korean Parent As A Teacher Test)를 이용하여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2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 10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양육태도 정도와 하위영역과 요인에 따른 양육태도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양육태도 정도는 평균 2.86(± .20)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양육태도 정도는 16개의 하위영역에서 「통제」 하위영역(2.24± .29)만 제외하고 모두 중간점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16개의 하위영역을 포함한 6개의 요인 또한 모두 중간점수

인 2.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정도의 차이는 아동의 성별($t=-1.457, p=.148$), 아동의 연령($t=.024, p=.981$), 아동 순위($t=1.576, p=.118$), 아동 성격($F=.602, p=.550$), 외동 여부($t=1.561, p=.122$), 대상자의 연령($t=.435, p=.665$), 직업 유무($t=.793, p=.430$), 교육 정도($t=-1.399, p=.165$), 종교 유무($t=1.447, p=.151$), 경제적 상태($F=.453, p=.637$) 등의 모든 변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령전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아동을 양육하는 더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 양육태도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 다른 발달연령의 아동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계숙, 김희숙, 이명숙, 김신정, 문선영 (1999). 아동간호학. 서울: 신광출판사.

김보영 (1990). 아동의 창의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자 (1982). 어머니의 간섭이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숙 (199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

회적 행동 동기에 관한 연구. 서울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숙, 강경아, 김순애, 김신정, 김현실, 김현옥, 문선영, 양은영, 이명숙, 정혜경 (2006). 아동 건강간호학 서울: 군자출판사.

박성연 (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27.

박연순 (1999). 유아의 놀이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창구 (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왕묵 (1984). 사회계층에 따른 육아방식에 관한 일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은경일 (199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안진 (1985). 유아 환경론. 서울: 창지사.

이 숙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숙 (2001). 유치원 학부모의 유아교육 참여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수 (1985).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아동 양육태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은숙 (2002).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계숙 (1987). 부모 양육태도 검사의 개발을 위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7, 41-61.

조결자, 강경아, 김신정, 문영숙, 오진아, 유경희, 이지원, 탁영란 (2005). 아동과 가족간호. 서울: 현문사.

조규성 (1999).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수진 (2002). 어머니의 유아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Strom, R., & Johnson, A. (1974). The parent As A Teacher. Education, 95(1), 40-43.

ABSTRACT

Key Words : Preschool, Children, Child rearing, Attitude

Preschool Children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 Using Korean Parent as a Teacher Test

Kim, Shin-Jeong* · Kim, Kae Sook** · Kim, Young He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a KPAAT(Korean Parent As a Teacher Test) and provide a basic data to develop parent education program. **Methods:** This is a secondary analysis study using 103 preschool mothers who were chosen from 2 kindergarten and child care center located at Kyoungki-Do. **Results:** 1) Subjects' child-rearing attitude was above average at the point of $2.86(\pm .20)$. 2) 16 sub-dimension(response to question, permissive attitude of play, control, control of play, expectation about child, understanding about learning, support of learning, encouragement of thinking, provision of imaginary play opportunities, support of play,

encouragement of accomplishment motivation, propriety of child-rearing, affectional support, fixed idea, confidence about education, limitation) and 6 factors(response to question, permission of play, control & limitation, evaluation & support about child, encouragement of academic accomplishment, facilitation of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were above 2.50 except <control> ($2.24\pm .29$) sub-dimension. 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onclusion:** From this study, KPAAT can be utilized later childhood period. And nurses need to help mothers to have sound child rearing attitude.

*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Ansan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